

중학생들의 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와 태도

손수경 · 이지현
고신대학교 의학부 간호학과

A Study on the State and Attitude toward Smoking and Passive Smok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Sue-kyung Sohn* · Ji-hyun Lee*
* Dept. of Nursing Science, Kosin University of Busan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identifying on the state and knowledge toward smoking and passive smok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6th. to 18th. August, 2001. Subject were 125 middle school students who were participated in the Smoking Cessation Program of S Health Agency in Busa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 for frequency, percent, mean, and chi-square test.

The smoking related state and attitude of subjects were as follows; the number of the smoking students are 10(8.0 %) at present, 19(15.2 %) at past experience, 53(42.4 %) having at present smoking friends, 73(58.4 %) having at present smoking family. Also the smoking starting time of present or past smoking experience was the middle school; 12(9.6 %) and elementary school; 11(8.8 %). They started because of the peer group members; 12(9.6 %), curiosity; 8(6.4 %), and looking good; 7(5.6 %).

The passive smoking related state and attitude of subjects were as follows; the number of the passive smoking aware rates are very well level; 71(56.8 %), well level; 54(43.2 %). The exposed experience to passive smoking was always; 38(30.4 %), sometimes; 86(68.8 %), not experience; 1(0.8 %). The place of exposure to passive smoking was game rooms; 67(53.6 %), house; 30(24.0 %), fast food place or cafeteria; 10(8.0 %), and street or in a vehicle ; 3(2.4 %). The main smoker to passive smoking exposure was unknown person; 61(48.8 %), grand parents or parents; 43(34.4 %), brothers or friends; 8(6.4 %), teachers; 4(3.2 %). The chief complaint of passive smoking exposure was dyspnea; 36(28.8 %), coughing; 34(27.2 %), dizziness; 21(16.8 %), no symptom; 18(14.4 %). The mostly affected smoker to passive smoking exposure was parents; 52(41.6 %), brothers or friends; 48(38.4 %). The health affected perception to passive smoking exposure was very affected; 109(87.2 %), not affected; 3(2.4 %).

In conclusion, it can be well recognized that considerable number of middle school students is exposed to the passive smoking in their homes and by unknown persons, but, their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xposure to passive smoking is not effective. Therefore, it is hoped that regular smoking education program at school and restriction campaign in home and the public place is necessary.

Key words : passive smoking, attitude, middle school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Research Institute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Kosin University of Busan,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흡연율의 급속한 증가는 청소년의 건강과 비행의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흡연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중학생의 남자 7.4%, 여자 3.2%, 그리고 고등학생 남자 27.6%, 여자 10.6%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0). 흡연자의 흡연 시작연령은 주로 중등학교 시절에 흡연을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흡연 연령의 시작은 점점 더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윤용진 등, 1996).

청소년은 전 생애의 인간발달을 통하여 볼 때 최고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모든 신체기관들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건강의 진가를 망각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금연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 아니라 흡연시작 연령이 저연령화됨으로 흡연기간이 장기화 된다.

장기적인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만성폐색성 폐질환, 심장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며 흡연당사자의 직접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담배연기에 대한 비흡연자의 비자의적인 노출인, 수동적 흡연(passive smoking) 즉, 간접흡연(second-hand smoke, indirect smoking)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담배연기 관련성분의 비자의적인 흡입행위를 뜻하며, 흔히 흡연당사자의 능동적 흡연행위와 대비되어 수동적 흡연 혹은 본의가 아닌 무의식적 흡연으로 불리워지고, 비흡연자가 실내에서 흡연자의 담배의 연소 화합물에 노출되므로 흡연자가 폐속에서 여과된 후 호기를 통해 배출하는 주류담배연기(mainstream smoke)와 담배자체의 연소로 인해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주류담배연기(side stream smoke)를 들이 마시으로써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비주류담배연기의 경우 실내공간의 담배연기중 약 85%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공기 중에서 희석되어 그 농도는 낮지만 주류담배연기보다 더 많은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그 보건학적 중

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간접흡연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성이 20년 내지 30년 후에 나타나므로 건강과의 문제를 사실상 무시하기 쉬운 실정이다(김건열, 1994).

청소년의 흡연시작 시기는 저연령화 됨에 따라 초등학교나 중학교때부터 이지만, 간접흡연을 시작하는 시기는 흡연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가정에 흡연하는 가족이 있다면,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간접 흡연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흡연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밝혀지고 있었지만 흡연자 본인에게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써 어디까지나 개인위생 문제로 다루어 왔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으로써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사실이 판명된 결과,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금연운동협의회, 2000). 특히, 간접 흡연으로 인한 청소년의 건강상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육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모든 세포와 조직이 약하고 유해물질 노출에 예민하기 때문이다(김일순, 1987).

또한, 청소년들은 정서적, 사회적으로도 미성숙하여 어른들의 흡연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기가 쉽다. 또, 청소년기에는 친구집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그 집단의 기준, 유행, 행동습관에 자신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친구 집단의 흡연에 노출되면 이를 거부하기보다는 집단에 동화되어 아주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게 된다(보건세계, 1992). 중학교때 흡연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 흡연을 하는 경우보다 니코틴 중독에 더 깊이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흡연을 하게 된 청소년이 다른 비흡연자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주는 간접흡연의 주범이 될 수 있다(보건세계, 1992).

이처럼 흡연과 간접흡연은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여 청소년 중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과 간접흡연에 대한 금연 교육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중학생들의 태도와 정서에 깊은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흡

연과 간접흡연에 관한 실태와 태도를 파악하고, 특히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지를 파악하므로 중학생들의 금연교육 계획·수립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 (1) 대상자의 흡연관련 실태 및 태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간접흡연관련 실태 및 태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흡연실태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관련 실태 및 태도를 파악한다.
- (5)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지 정도를 확인한다.

3. 용어정의

간접흡연 :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흡연행동에 의해서 담배연소 화합물인 연기를 마시게 되는 비본의적으로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이다 (Rockville, 1972). 본연구에서는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시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소재 일 보건소 ‘금연교실’에 본인의 의사로 참석한 중학교 학생 130명이었다. 설문지는 총 130부가 배부되어 128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125부가 통계 처리에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질문 3문항 흡연관련 특성의 문항 16문항, 간접흡연관련 특성 문항 12문항,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을 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지 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그 중 간접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의 질문은 간접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치명적이다”를 5점, “크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조금 있다”를 2점, “전혀 없다”를 1

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간접흡연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방법 및 기간

자료수집방법은 ‘금연교실’에 등록된 학생들에게 교육시작 전 배부하고 기입 방법을 설명한 다음, 각자가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8월 6일부터 2001년 8월 11일까지였다.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흡연관련 및 간접흡연관련 실태 및 태도는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 노출경험, 노출시 주흡연자, 노출시 반응과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수, 백분율, χ^2 -test,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흡연관련 실태 및 태도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15세가 69명(55.2%)로 가장 많았고 14세가 36명(28.8%), 16세가 20명(16.0%)이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63명(50.4%), 남학생이 62명(49.6%)으로 비슷하였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 67명(53.66%), 1학년 37명(29.6%), 3학년 21명(16.8%)으로 총 125명이었다(표1).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25)

특 성	구 분	실수 (%)
연령(세)	14	36 (28.8)
	15	69 (55.2)
	16	20 (16.0)
성별	남	62 (49.6)
	여	63 (50.4)
학년	중1	37 (29.6)
	중2	67 (53.6)
	중3	21 (16.8)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자신의 흡연경험 여부를 묻은 결과에서 '전혀 피운적이 없다'가 96명(76.8%)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 피운적이 있는 경우'가 19명(15.2%), '현재 피우는 경우'가 10명(8.0%)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하는 친구를 가진 경우'는 53명(42.4%), '과거에 흡연친구가 있었던 경우'는 5명(4.0%)이었으며, '흡연친구가 없는 경우'는 67명(53.6%)이었다. 그리고, '현재 흡연하는 가족을 둔 경우'는 73명(58.4%), '과거에 있었던 경우'는 20명(16.0%), '흡연가족이 없는 경우'는 32명(25.6%)이었다. 흡연 시작연령으로 '중학교'가 12명(9.6%), '초등학교'가 11명(8.8%)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시작 동기는 '또래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가 12명(9.6%)로 많았고, 다음은 '호기심으로'가 8명(6.4%), '어른스러워보이기 위해서'가 7명(5.6%)으로 나타났다. 금연에 실패한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가 13명(10.4%)로 가장 많았고, '주위의 흡연하는 것이 자극이 되어서'가 5명(4.0%), '호기심으로'가 3명(2.4%)의 순이었다. '동거 가족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는 78

명(62.4%)이었으며, 흡연에 대한 태도는 피우고 안 피우는 것은 '본인의 결정이라'고 답한 경우가 61명(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절대로 피워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4명(43.2%)이었고,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0명(8.0%)으로 나타났다. 흡연에 대한 인지도는 '아주 위험하다'고 답한 경우가 86명(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간 위험하다'라고 한 경우는 34명(27.2%)이었으며, '위험하지 않다'로 답한 경우도 5명(4.0%)이나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의 금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가 63명(50.4%), '없는 경우'가 62명(49.6%)이었으며, '금연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는 102명(81.6%), '없다'고 한 경우는 23명(18.4%)이었으며, '금연지지자가 있는' 경우는 79명(60.8%), '금연시도가 있는' 경우는 76명(60.8%)이었다. 한편, '흡연친구나 가족에게 금연을 권고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96명(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흡연은 자신이 결정할 일이기에 금연권고를 하지않거나 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29명(23.2%)이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흡연 및 간접흡연 관련 실태 및 태도

(N=125)

특 성	구 분	실수 (%)
자신의 흡연경험여부	전혀 피운적이 없다	96 (76.8)
	과거에 피운적이 있다	19 (15.2)
	현재 피운다	10 (8.0)
현재 흡연 친구의 존재	있다	53 (42.4)
	없다	67 (53.6)
	과거에 있었다	5 (4.0)
현재의 흡연 가족유무	있다	73 (58.4)
	없다	32 (25.6)
	과거에 있었다	20 (16.0)
흡연 시작 연령	초등학교	11 (8.8)
	중학교	12 (9.6)
	없다	102 (81.6)
가족 흡연자 유무	있다	78 (62.4)
	없다	47 (37.6)
	흡연에 대한 태도	피워도 된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피워서는 안된다고 생각		54 (43.2)
피우고 안피우는 것은 본인의 결정		61 (48.8)
아주 위험하다		86 (68.8)
흡연 위험에 대한 인지도	약간 위험하다	34 (27.2)
	위험하지 않다	5 (4.0)

특 성	구 분	실수 (%)
흡연시작 동기	또래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	12 (9.6)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 (1.6)
	호기심으로	8 (6.4)
	어른스러움	7 (5.6)
	해당없음, 무응답	96 (76.8)
흡연기간	1년 미만	5 (4.0)
	1-2년 미만	8 (6.4)
	2년 이상	2 (1.6)
1일평균 흡연량	해당없음, 무응답	110 (88.0)
	반갑미만	4 (3.2)
	한갑이상	2 (1.6)
금연에 대한 의지	있다	63 (50.4)
	없다	62 (49.6)
금연실패이유	스트레스 때문에	13 (10.4)
	주위의 흡연하는 것이 자극이 되어	5 (4.0)
	호기심으로	3 (2.4)
	일 때문에	2 (1.6)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2 (1.6)
금연교육의 필요성	필요하다	102 (81.6)
	필요없다	23 (18.4)
금연지지자 유무	있다	79 (60.8)
	없다	49 (39.2)
금연시도 유무	유	76 (60.8)
	무	49 (39.2)
흡연친구/가족 금연권고유무	하겠다	96 (76.8)
	안하겠다	11 (8.8)
	흡연은 자신이 결정할 일이다	18 (14.4)

표 3. 대상자의 간접흡연 관련 실태 및 태도

(N=125)

특 성	구 분	실수 (%)
옆사람의 간접흡연에 노출경험	항상 있다	38 (30.4)
	가끔 있다	86 (68.8)
	없다	1 (0.8)
집안 실내환경오염	좋다	94 (75.2)
	나쁘다	31 (24.8)
집안공기정화기	있다	35 (28.0)
	없다	90 (72.0)
간접흡연 인지도	잘 알고 있다	71 (56.8)
	조금 알고 있다	54 (43.2)
	없다	16 (12.8)
거주자중 흡연자수	1명	99 (79.2)
	2명	6 (4.8)
	3명	4 (3.2)
	없다	16 (12.8)

특 성	구 분	실수 (%)
간접흡연노출장소	집	30 (24.0)
	식당, 분식집	10 (8.0)
	오락실	67 (53.6)
	학교	3 (2.4)
	화장실	1 (0.8)
	교통수단 이용시	6 (4.8)
	학원	2 (1.6)
	길거리	6 (4.8)
	조부모, 부모	43 (34.4)
	형제, 친구	8 (6.4)
간접흡연노출시 주 흡연자	선생님, 선후배	4 (3.2)
	모르는 사람	61 (48.8)
	기타	9 (7.2)
	가만히 있다	18 (14.4)
	자리를 피한다	80 (64.0)
간접흡연시 자신의 태도	흡연않도록 부탁한다	12 (9.6)
	같이 피운다	15 (12.0)
	오히려 좋다	2 (1.6)
	불편하지 않다	17 (13.6)
	약간 불편하다	33 (26.4)
간접흡연시 자신의 기분	많이 불편하다	36 (28.8)
	정말로 고통스럽다	37 (29.6)
	없다	18 (14.4)
	눈이 따갑다	16 (12.8)
	기침이 나온다	34 (27.2)
간접흡연이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머리가 어지럽다	21 (16.8)
	숨이 가쁘다	36 (28.8)
	항상 한다	12 (9.6)
	가끔 한다	57 (45.6)
	사람에 따라서 한다	20 (16.0)
옆사람이 흡연시 금연을 권고한 경험여부	안한다	36 (28.8)
	부모	52 (41.6)
	형제, 친구	48 (38.4)
	기타	25 (20.0)
주변에서 담배피울 때 본인에게 제일 피해주는 사람		

표 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흡연실태

(N=125)						
특성	구분	전혀 피운적이 없다	과거 피운적이 있다	현재 피운다	계	χ^2 / P
성별	남	54 (87.1)	7 (11.3)	1 (1.6)	62 (100.0)	9.208, .010*
	여	42 (66.7)	12 (19.0)	9 (14.3)	63 (100.0)	
학년	중1	31 (83.8)	5 (13.5)	1 (2.7)	37 (100.0)	3.208, .524
	중2	51 (76.1)	10 (14.9)	6 (9.0)	67 (100.0)	
	중3	14 (66.7)	4 (19.0)	3 (14.3)	21 (100.0)	
계		96 (76.8)	19 (15.2)	10 (8.0)	125 (100.0)	

표 5-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 정도

(N=125)					
특성	구분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계	χ^2 / P
성별	남	43 (69.4)	19 (30.6)	62 (100.0)	7.902, .007**
	여	28 (44.4)	35 (55.6)	63 (100.0)	
학년	중1	25 (67.6)	12 (32.4)	37 (100.0)	4.812, .090
	중2	32 (47.8)	35 (52.2)	67 (100.0)	
	중3	14 (66.7)	7 (33.3)	21 (100.0)	
계		71 (56.8)	54 (43.2)	125 (100.0)	

2. 대상자의 간접흡연관련 실태 및 태도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험이 '가끔 있는' 경우가 86명(68.8%)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노출되는' 경우도 38명(30.4%)이었으며, 간접흡연에 '노출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1명(0.8%)이었다.

대상자의 집안 실내 환경오염 실태를 보았을 때, '좋은 경우'는 94명(75.2%), '나쁜 경우'는 31명(24.8%)이었으며, '집안에 공기 정화기를 가진 경우'는 35명(28.0%)이었으며, '없는 경우'는 90명(72.0%)이었다. 대상자가 '간접흡연에 관하여 잘 인지하는 경우'는 71명(56.8%)이었고, '조금 아는 경우'는 54명(43.2%)이었다. 거주자중 흡연자가 '1명'인 경우는 99명(79.2%)이었고, '2명 이상'인 경우는 10명(8.0%)이었으며, 거주자중 흡연자가 '없는' 경우는 16명(12.8%)이었으며, 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장소는 '오락실'이 67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집'이 30명(24.0%), '식당이나 분식집'이 10명(8.0%), '길거리나 교통수단 이용시'가 각각 6명(4.8%), '학교'가 3명

(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흡연노출시 주흡연자로는 '모르는 사람'이 61명(48.8%)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나 부모'가 43명(34.4%), '형제나 친구'가 8명(6.4%), '선생님이나 선후배'가 4명(3.2%)의 순이었다.

간접흡연에 노출시 연구대상자의 태도는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80명(64.0%)로 가장 많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18명(14.4%), '흡연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경우'가 12명(9.6%), '같이 피우는 경우'가 15명(12.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3).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흡연실태

성별에 따른 흡연경험 여부는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chi^2=9.208, P=.01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배를 전혀 피운 경험이 없는 경우가 여자(66.7%)보다 남자(87.1%)에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남자(1.6%)에 비해 여자(14.3%)가 훨씬 높게 나타나서, 여성 청소년 흡연률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표4).

표 5-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험

(N=125)

특성	구분	항상 있다	가끔 있다	계	χ^2 / P
성별	남	13 (21.0)	49 (79.0)	62 (100.0)	1.868, .224
	여	20 (31.7)	43 (68.3)	63 (100.0)	
학년	중1	6 (16.2)	31 (83.8)	37 (100.0)	4.910, .086
	중2	18 (26.9)	49 (73.1)	67 (100.0)	
	중3	9 (42.9)	12 (57.1)	21 (100.0)	
계		33 (26.4)	92 (73.6)	125 (100.0)	

표 5-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 노출시 주흡연자

(N=125)

특성	구분	(조)부모	형제친구	선후배/선생님	모르는사람	계	χ^2 / P
성별	남	20 (32.3)	2 (3.2)	1 (1.6)	39 (62.9)	62 (100.0)	4.116, .249
	여	38 (36.5)	6 (9.5)	3 (4.8)	31 (49.2)	63 (100.0)	
학년	중1	12 (32.4)	2 (5.4)	.	23 (62.2)	37 (100.0)	15.303, .018**
	중2	20 (29.9)	2 (3.0)	3 (4.5)	42 (62.7)	67 (100.0)	
	중3	11 (52.4)	4 (19.0)	1 (4.8)	5 (23.8)	21 (100.0)	
계		43 (34.4)	8 (6.4)	4 (3.2)	70 (56.0)	125 (100.0)	

* p<.05

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 실태 및 태도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에 대한 실태를 살펴 본 결과, 성별에 따른 간접흡연 인지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7.902$, $P=.007$) 간접흡연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우는 여자(44.4%)보다 남자(69.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여자의 간접흡연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표 5-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험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 노출시 주흡연자를 살펴 본 결과, 학년($\chi^2=15.303$,

$P=.018$)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 2학년의 경우는 (조)부모가 32.4%, 29.9%이고, 모르는 사람이 62.2%, 62.7%로 부모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인 경우는 간접흡연시 주로 흡연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23.8%인 반면 (조)부모가 52.4%로 높게 나타나서 학년에 따라 주흡연자가 다르게 나타났다(표 5-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 노출시 반응을 살펴 본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chi^2=12.74$ $P=.047$), 즉 연령이 증가

표 5-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간접흡연에 노출시 반응

특성	구분	불편하지 않다	약간 불편	많이 불편	고통스럽다	계	χ^2 / P
성별	남	8 (12.9)	14 (22.6)	18 (29.0)	22 (35.5)	62 (100.0)	2.548, .467
	여	11 (17.5)	19 (30.2)	18 (28.6)	15 (23.8)	63 (100.0)	
학년	중1	6 (16.2)	5 (13.5)	9 (24.3)	17 (45.9)	37 (100.0)	9.901, .129
	중2	9 (13.4)	20 (29.9)	21 (31.3)	17 (25.4)	67 (100.0)	
	중3	4 (19.0)	8 (38.1)	6 (28.6)	3 (14.3)	21 (100.0)	
계		19 (15.2)	33 (26.4)	36 (28.8)	37 (29.6)	125 (100.0)	

표 5-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간접흡연시 자신의 태도

특성	구분	가만 있다	피한다	흡연않도록 부탁한다	같이 피운다	계	χ^2 / P
성별	남	9(14.5)	39(62.9)	9(14.5)	5(8.1)	62(100.0)	4.709, .194
	여	9(14.3)	41(65.1)	3(4.8)	10(15.9)	63(100.0)	
학년	중1	1(2.7)	27(73.0)	4(10.8)	5(13.5)	37(100.0)	0.461, .107
	중2	14(20.9)	41(61.2)	7(10.4)	5(10.4)	67(100.0)	
	중3	3(14.3)	12(57.1)	1(4.8)	5(23.8)	21(100.0)	
계		18(14.4)	80(64.0)	12(9.6)	15(12.0)	125(100.0)	

할수록 불편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간접흡연으로 인한 고통스러움을 적게 호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표 5-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시 자신의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5).

5. 대상자의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지 정도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정도는 '임신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4.76점)'에 대하여 가장 높게 인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폐암발생에 미치는 영향(4.65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두뇌활동에 영향(4.38점)과 실내환경오염(4.37점), 두뇌활동에 미치는 영향(4.3점)의 순서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인지

하고 있었다(표 6).

IV. 고 찰

본 연구는 중학생의 흡연과 간접흡연에 관한 실태 및태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흡연실태 및 태도의 경우, 현재 흡연학생이 8.0 %, 과거 흡연학생은 15.2 % 현재 흡연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는 42.4 %였고, 현재 흡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58.4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은진(2000)의 연구에서 과거와 현재 흡연율이12.5%인 것과 이윤지와 이정애(1993)의 연구에서 5.2%인 것과 금연운동협의회 자료

표 6.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지 정도

구분	매우 치명적이다	크다	보통이다	조금있다	전혀없다	평균±표준편차
폐암발생에 미치는 영향	84(67.2)	39(31.2)	2(1.6)	.	.	4.65±0.50
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	59(47.2)	48(38.4)	18(14.4)	.	.	4.32±0.71
두뇌활동에 미치는 영향	63(50.4)	49(39.2)	11(8.8)	2(1.6)	.	4.38±0.71
임신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101(80.8)	19(15.2)	5(4.0)	.	.	4.76±0.51
실내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67(53.6)	46(36.8)	7(5.6)	2(1.6)	3(2.4)	4.37±0.85
계						4.50±0.52

(2000)에서 현재 흡연을 5.6%, 남자 중학생의 70.6%가 흡연가족을 가진 것과 유수진(1997)의 연구에서 현재 흡연을 3.08%, 과거 흡연을 8.46%, 흡연가족이 있는 경우가 64.4%, 흡연친구가 있는 경우가 6.29%이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와 가족의 흡연률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시기의 차이와 본 연구대상자의 일부가 관내 여러 중학교에서 모였으며 이미 흡연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방학중 보건소 금연교실에 참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부모의 무의식적인 흡연의 도취가 자녀의 흡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보건세계, 1992)을 반영하며, 즉 흡연하는 부모를 가진 청소년들은 스스로 흡연자가 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Swing, 1994).

본 연구에서 과거나 현재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 중 흡연시작 시기는 초등학교가 37.9%(전체 학생중 8.8%), 중학교가 41.3%(9.6%)로 나타났으며, 흡연을 시작한 동기는 또래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가 41.3%(전체 학생 중 9.6%), 호기심으로가 27.5%(6.4%), 어른스러워 보이기 위해서가 24.1%(5.6%)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수진(1997)의 연구에서 흡연시작 시기가 중2학년, 3학년이 59.3%였으며, 흡연동기는 호기심으로가 64.7%, 친구의 권유로가 29.4% 금연운동협의회 자료(2000)에서 남자 중학생

의 경우 흡연동기가 호기심으로가 44.0%, 친구들 따라서가 16.3%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흡연시작 연령이 훨씬 낮아졌음과 흡연동기가 호기심보다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함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금연교육을 일찍 시작하여야 하겠다.

둘째, 간접흡연 실태 및 태도를 살펴보면, 간접흡연관련 인지는 잘 알고 있다가 56.8%, 조금알고 있다가 43.2%이었으며, 간접 흡연에 노출경험은 항상 있다가 30.4%, 가끔 있다가 68.8%이었다. 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흡연자가 있는 경우가 87.2%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을 조사한 유수진(1997)의 연구에서 간접흡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16.15%, 조금 알고 있는 경우가 50.0%이었으며, 간접흡연 노출경험이 항상 있다가 20.0%, 가끔 있다가 69.23%이었고, 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 흡연자는 64.4%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간접흡연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고, 간접흡연에 대한 경험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므로 금연교육시 간접흡연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장소는 오락실이 53.6%로 가장 많았고, 집이 24.0%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을 조사한 유수진(1997)의 연구에서 대상자가 주로 간

접흡연에 노출되는 장소는 집, 길거리, 오락실의 순서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적인 환경 또한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건열, 1994). 특히 청소년 출입이 잦은 오락실은 청소년 흡연장소가 되며 밀폐된 공간으로부터 담배의 유해성분이 폐 깊숙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오락실을 금연장소로 규정할 뿐 아니라 법적 규제를 통하여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간접흡연노출시 주흡연자로는 모르는 사람이 48.8%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나 부모가 34.4%, 형제나 친구가 6.4%, 선생님이나 선후배가 3.2%의 순이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을 조사한 유수진(1997)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부모가 조부모나 부모가 45.46 %, 모르는 사람이 34.97 %, 형제나 친구가 8.39%, 선생님이나 선후배가 7.0 %인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것보다는 길거리나 오락실, 식당, 분식집 및 교통수단 이용시에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간접흡연이 많으므로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인 금연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대상자에게 제일 피해를 주는 사람은 부모가 41.6%로 가장 많았고 형제나 친구가 38.4 %였으며, 옆사람이 흡연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87.2%로 가장 많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는 2.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을 조사한 유수진(1997)의 연구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이 옆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하므로 금연교육시 간접흡연교육을 반드시 실천하여야 하겠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흡연과 간접흡연 실태를 살펴보면, 담배를 전혀 피운 경험이 없는 경우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높게 나타나서, 여성 청소년 흡연이 심각함을 나타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2001)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0)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 중에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흡연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금연교육의 대상자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여성 흡연의 심리와 실태를 고려하여 예방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리라 본다.

간접흡연 노출시 반응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불편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간접흡연으로 인한 고통스러움을 적게 호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흡연이나 간접흡연의 경험빈도가 많아지며, 익숙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정도는 '임신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폐암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두뇌활동, 실내환경오염 및 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의 순서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비교적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하여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금연교육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통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하여 인지를 높임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며, 사회적 금연운동의 확산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흡연과 간접흡연에 관한 실태와 태도를 파악하는 서술적 연구로써 중학생들의 금연교육 계획·수립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8월 6일부터 2001년 8월 11일까지였으며,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소재 일 보건소 '금연교실'에 본인의 의사로 참석한 중학교 학생 125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작성한 흡연과 간접흡연에 대한 36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χ^2 -test,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대상자의 흡연관련 실태 및 태도는 현재 흡연하고 있는 학생이 10명(8.0%)이었고, 과거에 피운적이 있는 학생은 19명(15.2%)이었으며, 현재 흡연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는 53명(42.4%)이었고, 현재 흡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73명(58.4%)이었다. 또

한, 과거나 현재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의 흡연시작 시기는 초등학교가 11명(8.8%), 중학교가 12명(9.6%)로 나타났으며, 흡연을 시작한 동기는 또래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가 12명(9.6%), 호기심으로가 8명(6.4%), 어른스러워보이기 위해서가 7명(5.6%)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간접흡연 실태 및 태도는 간접흡연에 관한 인지도로 잘 알고 있다가 71명(56.8%), 조금 알고 있다가 54명(43.2%)로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며, 간접 흡연에 노출경험의 정도는 항상 있는 경우가 38명(30.4%), 가끔 있는 경우가 86명(68.8%)이었으며, 없는 경우는 1명(0.8%)이었다. 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는 109명(87.2%)이었고, 간접 흡연에 노출시 자신의 기분은 정말로 고통스럽다가 37명(29.6%)로 가장 많았고, 많이 불편하다가 36명(28.8%), 약간 불편하다가 33명(26.4%)이었으며, 불편하지 않다가 17명(13.6%), 오히려 좋다고 한 경우도 2명(1.6%)이 있었다. 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장소는 오락실이 67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집이 30명(24.0%), 식당이나 분식집이 10명(8.0%), 길거리나 교통수단 이용시가 각각 6명(4.8%), 학교가 3명(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흡연노출시 주흡연자로는 모르는 사람이 61명(48.8%)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나 부모가 43명(34.4%), 형제나 친구가 8명(6.4%), 선생님이나 선배가 4명(3.2%)의 순이었다. 간접흡연이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숨이가빠다가 36명(2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침이 나온다가 34명(27.2%), 머리가 어지럽다가 21명(16.8%), 눈이 따갑다가 16명(12.8%)의 순이었으며, 영향이 없는 경우도 18명(14.4%)이 있었으며, 옆사람이 흡연시 금연을 부탁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가 57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안하는 경우가 36명(28.8%), 사람에게 따라서 하는 경우가 20명(16.0%), 항상 금연을 권고하는 경우는 12명(9.6%)이었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대상자에게 제일 피해를 주는 사람은 부모가 52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나 친구가 48명(38.4%)으로 나타났으며, 옆사람이 흡연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09명(87.2%)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는 3명(2.4%)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 대한 인지는 여자(44.4%)보다 남자(69.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간접흡연 노출시의 기분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 증가에 따라 간접흡연을 불편하지 느끼지 않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고통스러움을 적게 호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정도는 '임신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폐암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두뇌 활동 및 실내환경오염과 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의 순서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중학생들의 흡연실태는 가족 흡연자가 있거나 또래의 흡연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흡연과 간접흡연의 경험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간접흡연에 대한 의식이 철저하지 않으며, 간접흡연 노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미비하여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학생들이 흡연의 폐해를 더욱 철저히 인식하고, 간접흡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간접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보건교육의 실시가 절실히 필요하며, 흡연 시도의 예방과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론은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초등학생, 고등, 대학생 및 성인들의 간접흡연 실태에 대한 조사도 요구된다.
2. 청소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권연순. 현대인을 위한 금연 백과. 도서출판 등지; 1994.
2. 김건열. 흡연이 신체, 정신에 미치는 영향, 보건소식 1994; 81: 8-9.
3. 김일순. 흡연과 건강, 대한의학협회지 1987; 30(8): 825-830.
4. 김현주. 자기효능감증진 금연프로그램이 흡연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흡연여부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5. 대한산업보건협회. 수동 흡연의 건강 영향 1989 ; 3월호 : 54.
6. 대한산업보건협회. 흡연과 실내공기오염 1989 ; 4월호 : 51.
7. 최은진. 흡연예방을 위한 청소년의 교육방향,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2000 ; 17(2) : 75-85.
8. 박인혜, 정미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논 집 1996 ; 1 : 165-180.
9. 보건복지부. 이달의 길라잡이(청소년 흡연예방) 2001 ; 5월.
10. 보건세계. 청소년 흡연과 건강피해 1992 ; 5월호 : 24.
11. 서일, 이해숙, 손명세, 김익순, 신동천, 최영이. 전국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 실태, 한국 역학회지 1988 ; 10(2) : 219-229.
12. 안철민. 간접 흡연과 심장 질환의 위험도, 미국. JAMA 1992 ; 267 : 94-99.
13. 유수진. 중·고등학생의 간접흡연에 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14. 윤용진, 권창희, 기용호, 신동학. 도시와 읍면지역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과 흡연위험 인식도. 가정의학회지 1996 ; 17(10) : 877-882.
15. 이윤지, 이정애. 광주지역 남자 중고등학생의 흡연실태와 흡연관련 요인. 예방의학회지 1993 ; 6(3) : 359-370.
16.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최신 정보와 동향 ; 흡연과 건강 2000.
17. DiFranza Jr., Lew R.A. Effects of Parents' Smoking on Children, Pediatrics 1997 ; 4 : 560-568.
18. Guerin, Jenkins, Tomkins. The chemistry of ETS; composition ad measurement, Chelsea, Michigan ; Lewis Publishers 1992.
19. Repace, J. Lowrey A. An Enforceable Indoor Air Quality Standard for Environmental Tobacco Smoke in the workplace, Risk Analysis, 1989 ; 13(4) : 463-475.
20. Repace, J. & Lowrey A. Indoor Air Pollution, Tobacco Smoke and Public Health, Science, 1989 ; 208(2) : 464-472.
21. Rockville.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ublick Health Service, Center for Disease Control. PHS Publication 1972.
22. Weiss S.T. Environmental tobacco smoke and asthma, chest 1993 ; 104 : 991-992.
23. Wells, A.J. Passive smoking as a cause of Heart disease,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1994 ; 8 : 546-554.